

대학생의 양성평등의식이 결혼관 및 자녀관에 미치는 영향

문희¹, 선춘자^{2*}

¹순천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²(전)광양보건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The impact of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on view of marriage and children in university students

Moon Hee¹, Sun Chun Ja^{2*}

¹Professor, Dept. of Nursing, Suncheon National University

²Professor, Dept. of Nursing, Gwangyang Health Sciences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대학생의 양성평등의식이 결혼관과 자녀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설문지를 이용하여 남녀평등의식, 결혼관, 자녀관에 대한 인식 수준을 파악하였다. 연구를 위한 조사는 S시의 대학생 20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2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test, one-way ANOVA, 피어슨 상관계수,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대학생의 양성평등의식 수준은 평균 4.23점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대학생의 양성평등의식은 결혼관, 자녀관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양성평등의식의 하위영역 중 가정생활 영역에서 결혼관과 자녀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정생활 영역의 양성평등의식이 높을수록 결혼관에 대하여 개방적이었으며 자녀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학생의 긍정적인 결혼관 및 자녀관을 형성시키기 위하여, 남녀간의 균형잡힌 양성평등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대학생, 양성평등의식, 결혼관, 자녀관, 융합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impact of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on view of marriage and children in university students. Research tools used questionnaires to understand the level of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view on marriage and children. Participants were 205 university students in S city and analysis by frequency, percentage, average, standard deviation,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multiple regression using SPSS 28.0 program. The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appeared as an average of 4.23 points and female students were higher than male students.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view on marriage and children.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in home living life area affected the views on marriage and children. This means that the higher than the higher the sense of gender equality in home living life area, the view on marriage and children was more liberal. To form a positive view of marriage and children of university students, balanced education programs between men and women for gender equality are needed.

Key Words : University Students,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Marriage View, Children View, Convergence

*Corresponding Author : Sun Chun Ja(chkbt1@hanmail.net)

Received October 15, 2021

Accepted January 20, 2022

Revised November 30, 2021

Published January 28, 2022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우리나라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출산율 저하는 노인부담 비용 가중, 경제활동인구 감소 등 고령화 사회를 촉진하는 직접적인 사회문제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장과 존속까지 위협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을 발생시키고 있다[1,2]. 실제로 2020년 국내 합계출산율은 0.84명, 출생아 수는 27만 2천 3백 명으로 2019년 합계출산율 0.92명에서 0.08명, 출생아 수 30만 3천 명보다 10.0% 감소하여 통계작성 이래 최저치를 보이고 있다[3].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2020년 합계출산율 0.84명은 최저수준으로 하락 속도까지 빠른 편에 속하고 있다[4]. 이러한 급격한 출산율 저하의 주된 원인으로는 경제 발전, 산업화, 도시화뿐만 아니라 개인과 사회적 가치관 및 사회규범의 변화 등이 제시되고 있다[5,6].

현대 사회는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개인의 가치관인 양성평등의식, 결혼관, 자녀관 등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7,8]. 현재 젊은 세대의 가치관은 부모님 세대의 결혼과 동시에 가족을 구성한 것과 달리 결혼에 대해서는 선택 혹은 의사결정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고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만혼, 비혼, 출산 기피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8]. 또한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인 자녀 가치관은 자녀를 갖음으로써 얻게 되는 장점과 단점을 판단하여 결정하는 개인적인 행위로 인식하고 있다[9]. 특히 젊은 세대의 결혼이나 출산에 대한 가치관은 기존의 제도나 규범을 벗어나 결혼의 여부나 시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개인적인 상황을 고려한 선택적 행위로 변화되었고, 저출산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지원과는 상관없이 개인의 결혼관, 자녀관에 대한 가치관에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9].

우리나라 청년층의 결혼과 자녀에 대한 인식은 변화하고 있다. Korea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의 '2020 한국의 사회 지표'를 살펴보면 청년층의 비혼에 대한 선호도 증가, 결혼을 해야 한다는 비중이 2010년 64.7%에서 2020년 51.2%로 감소, 20대 중 자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2018년 51.5%에서 51.2%로 감소 등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하락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10].

청년층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대학생은 성인이 되

기 위해 준비하는 시기로 결혼에 대한 정체성이 확립되고 양성평등의식을 갖고 이성 교제를 통한 결혼 준비 및 긍정적인 결혼관을 구축해 나가기 위해 준비하는 시기이다[7]. 따라서 우리 사회는 대학생들이 결혼 및 출산에 대하여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관 형성에 초점을 두고, 대학생의 결혼관 및 자녀관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중점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11].

양성평등의식은 여성 또는 남성 중 어느 특정 성에 대하여 편견, 부정적 감정, 차별적 태도 없이 생물학적인 차이를 사회문화적인 차이로 직결시키지 않으며 남녀 모두에게 동등한 대우를 해야 한다는 의식을 말한다[1]. 대학생 시기에 형성된 양성평등의식은 후기 성인기에 영향을 미치므로[12], 본 연구를 통하여 양성평등의식이 근접한 미래에 부모가 될 대학생이 갖고 있는 결혼관, 자녀관에 주는 영향을 파악하여 긍정적 양성평등의식과 결혼관, 자녀관 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그동안 이루어진 대학생의 양성평등의식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학생의 양성평등의식과 출산의식과의 관계 연구[1,7,12], 양성평등의식과 결혼관의 관계 연구[13-15]가 있었고 양성평등의식이 결혼관, 자녀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Cho[16]는 서울시의 대학생 양성평등의식 조사 연구에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양성평등의식이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고, 선행연구[13,14]에서는 대학생의 양성평등의식이 성별에 따라 상이하게 결혼관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양성평등의식 향상을 위한 대학생 교육프로그램은 성별에 따라 차별화되어 개발되고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는 대학생의 양성평등의식이 결혼관 및 자녀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향후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개선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대학생의 양성평등의식이 결혼관, 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며,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양성평등의식, 결혼관, 자녀관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성평등의식, 결혼관, 자녀관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대학생의 양성평등의식, 결혼관,

자녀관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마지막으로 양성평등의식이 결혼관 및 자녀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의 양성평등의식이 결혼관과 자녀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전라남도 S시에 위치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편의 모집하였다. 대상자 수는 G-Power 3.1.9.4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α 는 .05, 검정력은 0.95, 효과 크기 0.15, 투입 변수 10개로 산출한 결과 회귀분석에 필요한 표본 수는 172명이었다. 산출된 172명에 탈락률 약 20%를 고려하여 총 210명을 자료 수집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설문지를 배부한 결과 총 210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고, 불성실한 응답 5부를 제외하고 최종 분석 자료로 205부의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자료 수집은 2021년 3월 22일부터 4월 6일까지 약 15일 동안 진행되었다. 각 학과의 대표를 통해서 연구의 목적과 방법, 설문 내용, 익명성 및 비밀 보장, 자발적 참여와 중단이 가능한 점, 대략의 소요 시간 등을 설명한 후 설문 참여에 동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2.3 연구 도구

가. 양성평등의식

양성평등의식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Kim 등[17]이 개발한 도구를 Ahn 등[18]이 개정한 한국형 양성평등의식 검사(KGES: Korean Gender Egalitarianism) 축약형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가정생활 영역, 교육생활 영역, 사회문화 영역, 직업생활 영역의 4개의 하위요인과 각 요인은 3문항씩 총 12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으로 배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양성평등의식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 = .9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양성평등의식 전체의 신뢰도는 .86이었다.

나. 결혼관

결혼관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Jung 등이 개발한

결혼관 척도를 Lee[19]가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매우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의 5점으로 배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에 대해 보수적이고, 결혼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Lee[19]의 연구에서는 도구의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 = .82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76이었다.

다. 자녀관

자녀관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Lee[20]와 Bae[21]의 설문지를 중심으로 Park[22]이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8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매우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의 5점으로 배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를 낳아야 한다거나 자녀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자녀관 척도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80으로 나타났다.

2.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s 2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분석하였으며 양성평등의식, 결혼관, 자녀관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둘째,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성평등의식과 결혼관, 자녀관 차이는 독립표본 t-test, one-way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검정은 Scheffe test로 분석하였다. 셋째, 대학생의 양성평등의식과 결혼관, 자녀관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넷째, 대학생의 양성평등의식이 결혼관 및 자녀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적 유의수준은 $p < .05$ 로 설정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 출생 순서, 결혼 의도, 자녀계획, 원하는 자녀 수 등이 포함되며 분석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성별은 남성이 74명(36.1%), 여성이 131명(63.9%)이었고, 연령은 20-22세가 105명(51.2%), 23-26세가 100명(48.8%)이었다. 출

생 순서는 첫째가 86명(42.0%), 둘째가 89명(43.4%), 셋째 이상이 30명(14.6%)이다. 결혼에 대한 생각은 하는 편이 좋다 99명(48.3%),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고 응답한 사람이 95명(46.3%), 결혼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사람은 11명(5.8%)으로 나타났다. 자녀를 낳을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138명(67.3%)이었으며 계획이 없다 44명(21.5%), 자녀를 낳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23명(11.2%)으로 나타났다.

3.2 양성평등의식, 결혼관, 자녀관 수준

대상자의 양성평등의식, 결혼관, 자녀관의 수준은 Table 2와 같다. 양성평등의식 정도는 평균 4.23점이었으며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가정생활 영역 4.26점, 학교생활 영역 4.61점, 사회문화 영역 4.44점, 직업생활 영역 3.62점이었다. 결혼관 정도는 3.31점이었으며 자녀관은 2.57점으로 조사되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N=205)

Variables	Categories	N (%)	M±SD
Gender	Male	74(36.1)	
	Female	131(63.9)	
Age(years)	20-22	105(51.2)	21.74
	23-26	100(48.8)	±1.54
Birth order	1st	86(42.0)	
	2nd	89(43.4)	
	≥3rd	30(14.6)	
Thinking about marriage	It is better to marry	99(48.3)	
	Marriage is good or not	95(46.3)	
	It is better not to marry	11(5.4)	
Planning to have children	yes	138(67.3)	
	no	44(21.5)	
	I never thought about it	23(11.2)	

Table 2. Level of Gender equality, View on marriage and Children (N=205)

Variables	Mean ±SD	Min ~ Max
Gender equality	4.23±0.64	1.25 ~ 5.00
Home living	4.26±0.80	1.33 ~ 5.00
Educational life	4.61±0.62	1.00 ~ 5.00
Society and culture life	4.44±0.76	1.67 ~ 5.00
Work life	3.62±0.95	1.00 ~ 5.00
View on marriage	3.31±0.61	1.75 ~ 4.83
View on Children	2.57±0.96	1.00 ~ 5.00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성평등의식, 결혼관, 자녀관 정도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성평등의식, 결혼관, 자녀관에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Table 3-1과 같다. 또한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양성평등의식 하위영역별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Table 3-2와 같다.

양성평등의식의 경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t=-5.06, p<.001$), 결혼할 생각이 있는 집단이 결혼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집단이나 결혼할 생각이 없는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F=7.18, p=.001$). 성별에 따른 양성평등의식 하위영역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직업생활 영역의 수준이 가장 낮았고, 학교생활 영역은 가장 높았다.

결혼관의 경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으며($t=5.35, p<.001$), 결혼 생각이 있는 집단이 가장 높았고 결혼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그리고 결혼 생각이 없는 집단 순으로 나타났다($F=6.93, p<.001$). 또한 결혼관은 자녀계획이 있는 집단이 자녀계획이 없거나 자녀를 낳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F=16.33, p<.001$).

자녀관의 경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으며($t=4.35, p<.001$), 결혼 생각이 있는 집단이 결혼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집단이나 결혼 생각이 없는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F=36.20, p<.001$). 또한 자녀관은 자녀계획이 있는 집단이 가장 높았고 자녀를 낳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집단, 그리고 자녀계획이 없는 집단 순으로 나타났다($F=40.97, p<.001$).

Table 3-2. Differences of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by gender (N=205)

Variables	Sex	M±SD	t	p
Gender equality	Male	3.95±0.76	-5.05**	<.001
	Female	4.39±0.49		
Home living area	Male	3.91±0.91	-4.86**	<.001
	Female	4.46±0.66		
Educational life area	Male	4.42±0.81	-3.38**	.001
	Female	4.72±0.46		
Society culture life area	Male	4.15±0.93	-4.30**	<.001
	Female	4.61±0.59		
Work life area	Male	3.31±1.08	-3.36**	.001
	Female	3.79±0.82		

** $p<.001$

Table 3-1. Differences of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value of marriage and children by general characteristics(N=205)

Variables	Categories	Gender equality		View of marriage		View of Children point	
		M±SD	t / F(p) Scheffe	M±SD	t / F(p) Scheffe	M±SD	t / F(p) Scheffe
Gender	Male	3.95±0.76	-5.06 (.001)	3.59±0.61	5.35 (.001)	2.94±0.96	4.35 (.001)
	Female	4.39±0.49		3.14±0.54		2.36±0.89	
Age(years)	20-22	4.33±0.61	2.16(.052)	3.26±0.59	-1.20(.053)	3.07±0.70	-1.93(.055)
	23-26	4.14±0.65		3.36±0.62		3.19±0.72	
Birth order	1st	4.29±0.61	0.53(.590)	3.26±0.64	0.77(.464)	2.59±0.99	0.02(.976)
	2nd	4.20±0.66		3.37±0.57		2.56±0.99	
	≥3rd	4.19±0.63		3.26±0.62		2.58±0.82	
Thinking marriage [†]	about It is better to marry ^a	4.07±0.73	7.18(.001) c)b,a	3.71±0.49	6.93 (.001)	3.13±0.85	36.20 (.001)
	Marriage is good or not ^b	4.37±0.49		2.96±0.39		2.09±0.72	
	It is better not to marry ^c	4.56±0.49		2.61±0.62		1.68±0.78	
planning to have children [†]	yes ^a	4.14±0.68	4.60(.104)	3.49±0.56	16.33 (.001)	3.37±0.65	40.97 (.001)
	no ^b	4.42±0.49		2.95±0.58		2.46±0.50	
	I never thought about it ^c	4.44±0.49		2.91±0.40		2.83±0.47	

Table 4. Correlation among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views on marriage, views on children (N=205)

Variables	Gender equality r(ρ)	Home living area r(ρ)	Educational life area r(ρ)	Society and culture life area r(ρ)	Work life area r(ρ)	View on marriage r(ρ)	View on children r(ρ)
Home living area	.84**	1					
Educational life area	.77**	.56**	1				
Society and culture life area	.85**	.66**	.60**	1			
Work life area	.80**	.50**	.46**	.52**	1		
View on marriage	-.35**	-.40**	-.23**	-.30**	-.21**	1	
View on children	-.30**	-.39**	-.24**	-.21**	-.11**	.57**	1

**p<.001

3.4 양성평등 의식, 결혼관, 자녀관의 상관관계

양성평등 의식과 결혼관 및 자녀관과의 상관관계는 Table 4와 같다. 양성평등 의식 점수와 양성평등 의식 하위영역, 구체적으로 가정생활 영역(r= .84), 학교생활 영역(r= .77), 사회문화 영역(r= .85), 직업생활 영역(r= .80)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양성평등 의식은 결혼관(r=-.35)과 자녀관(r=-.30)에서 모두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결혼관은 자녀관(r= .57)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양성평등 의식 하위요인들과 결혼관과의 관계는 모두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관도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3.5 결혼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결혼관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변수인 성별, 결혼에 대한 생각, 자녀 계획, 양성평등 의식 하위영역을 독립변수로 하고 결혼관을 종

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Table 5. Factors influencing on views on marriage (N=205)

Category	B	SE	β	t	p
Gender dummy [*]	-.19	.07	-.15	-2.75	.007
Thinking about marriage(yes) [*]	.63	.08	.52	8.42	.000
Thinking about marriage(no) [*]	.29	.15	.11	-1.95	.052
Planning to have children(yes) [*]	.15	.11	.12	1.45	.149
Planning to have children(no) [*]	.16	.12	.11	1.36	.175
Home living area	-.15	.06	-.20	-2.67	.008
Educational life area	.03	.07	.03	.50	.619
Society and culture life area	-.01	.06	-.01	-.18	.859
Work life area	-.01	.04	-.01	-.14	.889

R=.76, R²=.511, Adjusted R²=.486
F= 20.27, p<.001

*Dummy coded(Reference: gender=male 0, Thinking about marriage=Marriage is good or not 0, Planning to have children=I never thought about it 0).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공차 한계와 분산 팽창계수(VIF)를 산출하였으며 공차 한계의 경우 모두 0.461~0.881로 0.1 이상이었고 분산 팽창계수(VIF)의 값은 1.135~2.671으로 10 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오차의 독립성을 검증한 결과 Durbin-Watson 통계량이 1.886으로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혼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모형은 $F=20.27$, $p<.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설명력은 48.6%였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정 결과는 결혼에 대한 생각이 있는 경우($\beta=.52$, $p=.000$), 가정생활 영역($\beta=-.20$, $p=.008$), 성별더미($\beta=-.15$, $p=.007$) 순으로 결혼관에 대해 유의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결혼을 할 생각이 있는 경우에 결혼관은 증가하였고, 여성의 경우, 양성평등의식의 가정생활 영역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관은 감소하였다.

3.6 자녀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자녀관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변수인 성별, 결혼에 대한 생각, 자녀계획, 양성평등의식의 하위요인을 독립변수로 하고 자녀관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Table 6과 같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공차한계와 분산팽창계수(VIF)를 산출하였으며 공차 한계의 경우 모두 0.374~0.849로 0.1 이상이었고 분산 팽창계수(VIF)의 값은 1.218~2.671으로 10 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오차의 독립성을 검증한 결과 Durbin-Watson 통계량이 1.994로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회귀모형은 $F=16.03$ $p<.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설명력은 42.4%이었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정 결과는 결혼할 생각이 있는 경우($\beta=.37$, $p=.000$), 가정생활 영역($\beta=-.27$, $p=.001$), 자녀를 낳을 계획이 없는 경우($\beta=-.19$, $p=.025$)순으로 자녀관에 대해 유의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결혼할 생각이 있는 경우 자녀관은 증가하였고, 양성평등의식의 가정생활영역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계획이 없는 경우 자녀관은 감소하였다.

Table 6. Factors influencing on views on children (N=205)

Category	B	SE	β	t	p
Gender dummy [*]	-.21	.12	-.11	-1.83	.069
Thinking about marriage(yes)	.70	.13	.37	5.62	.000
Thinking about marriage(no)	-.07	.25	-.02	-.26	.796
Planning to have children(yes)	-.44	.19	-.19	.88	.379
Planning to have children(no)	-.44	.19	-.19	-2.26	.025
Home living area	-.33	.09	-.27	-3.46	.001
Educational life area	-.15	.11	-.10	-1.37	.171
Society and culture life area	.19	.11	.15	1.85	.066
Work life area	.08	.07	.07	1.11	.270
R=.67, R ² =.452, Adjusted R ² =.424 F= 16.03, p<.001					

*Dummy coded(Reference: gender=male 0, Thinking about marriage=Marriage is good or not 0, Planning to have children=I never thought about it 0).

4. 논의

본 연구는 대학생의 양성평등의식, 결혼관, 자녀관 정도를 파악하고 양성평등의식이 결혼관과 자녀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시도되었다.

대상자의 양성평등의식은 평균 4.23점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은 4.39점, 남학생은 3.95점으로 나타나 여학생의 양성평등의식 수준이 남학생보다 높았다. 이는 간호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Kang 등[23]의 3.85점, Lee[24]의 교원양성기관 대학생 3.89점보다 높았으며 최근 성 가치관이 변화되어 사회적으로 양성평등의식이 높아져 가는 것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양성평등의식이 높았던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하지만[12, 24] 다른 한편으로는 남학생의 양성평등의식이 여학생보다 높았던 연구와는 반대의 결과를 나타냈다[13,14]. 기존 선행연구 결과는 상반되지만 이를 통해 남녀의 내재된 생각의 차이가 개인의 성격특성과 사회문화적 특성 등에 반영이 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12]. 따라서 양성평등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증적적 접근은 남녀별로 방법이 다르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성평등의식은 성별, 결혼 생각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또한 양성평등의식은 하위영역인 학교생활 영역, 사회문화 영역, 가정생활 영역, 직업생활 영역 순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크게 나타나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Park[13]의 연

구에서는 사회문화영역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양성평등의식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직업생활 영역을 빼고 조사한 Lee[24]의 연구에서는 가정생활, 사회문화, 학교생활 순으로 가정생활에서 양성평등에 대해 가장 높게 인식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학교생활, 사회문화, 가정생활, 직업생활 순으로 학교생활 영역에서 양성평등의식이 가장 높아 차이가 있었다. 이는 사회구조의 다원화로 여성의 역할에 대한 변화된 인식과 남녀 구별 없이 각자가 지닌 능력이 중시되는 양성평등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이 반영되면서 인식의 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혼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군이 결혼은 하는 편이 좋다고 응답한 군보다 양성평등의식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미혼여성이 양성평등의식이 높을 때 결혼의 필요성을 낮게 생각한다는 연구 결과와 상당히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15].

일반적 특성에 따른 결혼관과 자녀관의 수준은 성별, 결혼 생각, 자녀를 낳을 계획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성별에 따른 결혼관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남학생이 여학생의 결혼관 수준보다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보수적인 결혼관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측정 도구가 달라 개념을 해석하는데 주의가 필요하지만, 남학생의 결혼관이 여학생에 비해 보수적이었다는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7,25]. 즉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결혼을 하고자 하는 의향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결혼제도가 여전히 여성에게 더 많은 부담을 요구하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이며, 여성들의 교육 수준 향상, 전문직으로서의 사회적 인정, 경제적 자립 등이 가능해진 사회적 변화를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결혼을 하는 편이 좋다고 응답한 군의 결혼관이 가장 높았고, 결혼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는 응답한 군이 두 번째,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군이 결혼관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서 결혼에 대한 생각이 긍정적일수록 결혼관의 수준이 높은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녀를 낳을 계획에서는 자녀를 낳을 계획이 있는 경우가 결혼관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자녀를 낳을 계획이 없는 경우가 두 번째, 자녀 계획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응답한 군이 결혼관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자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계획을 갖는 대학생은 결혼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결혼관 수준이 높은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별에 따른 자녀관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남학생이 여학생의 자녀관 수준보다도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일관되게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긍정적인 자녀관을 가진 것으로 보고한 것과 일치하였다[7,8]. 남학생의 경우 결혼에 대해 긍정적일수록 자녀관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성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8,15] 이러한 결과는 결혼을 통해서 출산과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전통적인 사회적 통념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기 때문이라 하였다[7]. 그러나 가치관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므로 남녀대학생들의 결혼관과 자녀관에 관심을 두고 추후 반복 연구를 통해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결혼을 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한 응답군이 결혼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고 생각한 응답군과 결혼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군보다 자녀관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결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자녀를 갖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대학생의 양성평등의식은 결혼관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양성평등의식과 결혼의 필요성 간에 부적 상관을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로[14,15] 양성평등의식이 높을수록 결혼의 필요성을 낮게 인식하는 개방적인 태도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최근 여성의 사회활동이 증가하였으나 결혼 후 가정 내에서 남녀의 역할에 대한 전통적인 고정관념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양성평등의식과 자녀관과의 관계에서는 가정생활 영역, 학교생활 영역, 사회문화 영역, 직업생활 영역에서 부적 상관관계로 조사되었지만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직접적으로 비교를 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추후 반복적인 연구를 통해 양성평등의식과 자녀관의 변화를 관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양성평등의식이 결혼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혼을 할 생각이 있는 경우에 결혼관은 증가하였고, 여성의 경우, 양성평등의식의 가정생활 영역 점수가 높은 경우 결혼관은 감소하여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선행연구에서의 양성평등의식의 가정생활, 학교생활, 직업생활, 사회문화생활 영역이 결혼관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양성평등의식이 높을수록 결혼관이 개방적인 태도를 보인 결과

와 유사하였다[14]. 또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가족가치관을 연구한 선행연구에서 고등학생의 사회문화 영역에 대한 양성평등의식이 높을수록 결혼에 대한 태도가 개방적이고 부정적이라는 결과[26]와 미혼여성의 자아실현, 양성평등의식과 결혼관의 구조적 관계 분석을 한 선행연구에서 미혼여성의 양성평등의식이 높을수록 전통적인 결혼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결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예측한 결과[15]와 유사하였다. 따라서 양성평등의식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결혼관이 낮은 이유를 고민하고 결혼관은 사회, 문화, 경제적 환경에 따라 깊이 영향을 받고 변화할 수 있는 가치관이기 때문에[27]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다양한 관련변수들을 매개로 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양성평등의식이 자녀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혼을 할 생각이 있는 경우 자녀관은 증가하였고, 양성평등의식의 가정생활 영역 점수가 높은 경우, 자녀계획이 없는 경우 자녀관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아 직접 비교할 수 없었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추후 반복적인 연구를 통해 양성평등의식과 자녀관의 변화를 관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양성평등의식의 하위변인 사회문화 영역, 학교생활 영역에서 자녀관에 부정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한 결과와 유사하였고[28], 본 연구에서는 가정생활 영역에서의 양성평등의식이 높을수록 자녀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관은 향후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자녀관이 실제 자녀수와 상관성이 있다는[28] 연구 결과를 본다면 최근 낮은 출산율이 사회적 문제인 상황에서 자녀 가치관은 더욱 중요성이 부각 되고 있으며 출산에 대한 개인의 자율적인 선택도 저출산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대학생들에게 주시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Bae 등[29]은 출산율 회복국가들인 프랑스, 스웨덴, 독일 등은 합계출산율이 최저수준으로 하락한 시점에 남성과 여성 모두에 대한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바탕으로 한 가족정책을 실시하여 출산율 반등이 가능하였다고 하였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청년층의 혼인 및 출산 기피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성평등적 가족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며 결과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가치관 변화로 인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청년층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대상자 표집에 있어 지역에 따른 제한으로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양성평등의식과 자녀관과의 관계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 해석에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회 집단을 대상으로 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양성평등의식이 결혼관 및 자녀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남녀대학생을 대상으로 양성평등의식이 결혼관과 자녀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학생의 양성평등의식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영역 중 교육생활 영역이 가장 높았으며 사회문화 영역, 가정생활 영역, 직업생활 영역 순이었다. 양성평등의식 수준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하위영역 중 가정생활 영역에서 양성평등의식이 높을수록 결혼관에 대해서는 개방적이었으며 자녀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상대적으로 양성평등점수가 높은 여성의 경우에 사회활동이 증가하였으나 결혼 후 가사노동과 양육의 부담감으로 결혼과 자녀 출산의 필요성을 남성보다 덜 느끼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남녀 모두 성별을 이유로 행동에 제한을 받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인식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아직 전통적인 고정관념이 남아있는 상태인 결혼이나 자녀 양육에 대해서는 불필요하다고 느껴졌을 수도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 대상 지역의 범위를 확장하여 양성평등의식에 따른 결혼관과 자녀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가치관의 경우 사회 환경적인 요소의 영향을 많이 받고 변화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양성평등의식, 결혼관, 자녀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양성평등의식에 관한 많은 선행연구들의 대상자가 주로 대학생이며 다양한 연령대에 따른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령에 따른 양성평등의식과 결혼관 및 자녀관의 관계를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1] J. B. Park. (2020). Structural relationship analysis of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perceptions of parenthood and procreation consciousness in 2030 generation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1, 11(6), 2349-2364. DOI : 10.22143/HSS21.11.6.166
- [2] S. K. Kim. (2004). Change in fertility rates in Korea: causes and future prospect.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27(2), 1-34.
- [3] Korea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2021, August. 25). *2020 fertility*. Retrieved August. 31, 2021, from the Korea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2/3/index.board
- [4] OECD. (2020). *Fertility rates (indicator)*. doi: 10.1787/8272fb01-en (Accessed on 31 August 2021)
- [5] T. Anderson & H. P. Kohler. (2013). Education fever and the East Asian fertility puzzle: A case study of low fertility in South Korea. *Asian Population Studies*, 9(2), 196-215.
DOI : 10.1080/17441730.2013.797293
- [6] A. H. Gauthier. (2015). Social norms, institutions, and policies in low-fertility countries. In *Low Fertility and Reproductive Health in East Asia* (pp. 11-30). Springer, Dordrecht.
DOI : 10.1007/978-94-017-9226-4_2
- [7] K. S. Kim & J. H. Kim. (2019). The impact of college students'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to childbirth will: focused on mediating about marriage awarenes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9(13), 69-88.
DOI : 10.22251/jlcci.2019.19.13.69
- [8] H. Kim & Y. Hong. (2013). Attitude to reproductive health, value of marriage and children of university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School & Community Health Education*, 14(1), 13-24.
- [9] H. Choi & S. H. Lee. (2014). Factors influencing the value of having children among university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4), 587-595. DOI : 10.5977/jkasne.2014.20.4.587
- [10] Korea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2021, March. 25). *2020 Korea's social indicators*. Retrieved August. 31, 2021, from the Korea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6/5/index.board
- [11] M. H. Do. (2011). The effect of college students' awareness on marriage and childbirth to future marriage and childbirth.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6(4), 163-178.
- [12] J. H. Kim et al. (2017). The relationship between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self-esteem, and stress i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Muscle and Joint Health*, 24(3), 171-178.
DOI : 10.5953/JMJH.2017.24.3.171
- [13] S. H. Park. (2019). A comparative study on the effect of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on the perceptions of marriage of male and female university students. *Health & Welfare* 21(3), 87-106.
DOI : 10.23948/kshw.2019.09.21.3.87
- [14] S. H. Park. (2016). The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and perceptions of marriage in university students-Based on university students in Gyeongsang-do region.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12(1), 207-232.
DOI : 10.24159/joec.2016.22.6.207
- [15] C. S. Park & S. G. Yeom. (2015). The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self-actualization, gender equality awareness, and marriage value in unmarried women.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7(3), 1633-1651.
- [16] J. K. Cho. (2018). A Study on the actual status of awareness of gender equality and gender equality education of university students.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1-218.
- [17] Y. H. Kim & K. A. Jung. (1999). *Development of the Korean Gender Egalitarianism Scale (KGES)*. Seoul: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18] S. S. Ahn., I. S. Kim & G. M. Kim. (2016). *Development of a Revised Korean Gender Egalitarianism Scale (R-KGES) (1)*. Ministry of Gender Equality, Seoul.
- [19] J. W. Lee. (2006). *On the university students' perceived views over family, marriage, and children*. Master's thesis. Yeungnam University, Daegu.
- [20] M. R. Lee. (2007). *An empirical study on the influencing factors of delivery behavior: focusing on recognition of female residents in Seoul*. Doctoral dissertation. Kookmin University, Seoul.

- [21] S. B. Bae. (2011). *A study on the effects of the childbirth promotion policies on the childbirth motives : focusing on full-time unmarried women*. Master's thesis. Konkuk University, Seoul.
- [22] H. U. Park. (2013). *A study on the effects of cognition about low fertility on childbirth will*. Master'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 [23] E. H. Kang, M. Y. Kim & E. K. Byun, (2021). Effect of marriage consciousness, occupational consciousness,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on the childbirth will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7(3), 7-17.
DOI : 10.17703/JCCT.2021.7.3.7
- [24] E. H. Lee. (2019). Pre-service teachers' perception of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and marriage values. *Teacher Education Research*, 58(2), 267-278.
DOI : 10.15812/ter.58.2.201906.267
- [25] H. Kim, H. J. Kim & M. S. Seo. (2020). Comparison of convergence factors affecting views on marriage of male and femal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11(3), 153-162.
DOI : 10.15207/JKCS.2020.11.3.153
- [26] J. H. Kang. (2013). *The influence of high school students' gender equalitarianism on their family values*.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 [27] C. S. Park & S. G. Yeoum. (2015). The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Self-actualization, Gender Equality Awareness and Marriage Value in Unmarried Women.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7(3), 1633-1651.
- [28] B. Nauck & D. Klaus. (2007). The varying value of children: Empirical results from eleven societies in Asia, Africa and Europe. *Current Sociology*, 55(4), 487-503.
- [29] J. A. Bae, J. B. Gil & H. J. Lee. (2019). *Comparative study of policies to counter the low birth rate in major countries*. Seoul: The Audit and Inspection Research Institute.

문 희(Moon Hee)

[정회원]



- 1989년 2월 : 전남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학사)
- 1995년 2월 : 전남대학교 대학원(간호학석사)
- 2003년 2월 : 전남대학교 대학원(간호학박사)

- 2016년 2월 ~ 현재 : 순천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 관심분야 : 여성건강간호학, 다문화간호
- E-Mail : scumoon@scnu.ac.kr

선 춘 자(Sun Chun Ja)

[정회원]



- 1993년 2월 : 전남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학사)
- 2007년 2월 : 전남대학교 대학원(간호학석사)
- 2017년 2월 : 경상대학교 대학원(간호학박사)

- 2014년 5월 ~ 2020년 8월 : 광양보건대학교 간호과 조교수
- 관심분야 : 간호조직문화, 문화적 역량
- E-Mail : chkbt1@hanmail.net